


**수평적 선교 vs 수직적 선교**

글로벌 선교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수평적일 수도 있고 수직적일 수도 있다.

수평적인 차원 

세계를 지리적, 인종적,  
사회문화적인 경계에 따라 이해

1) 카리스 교차문화학 연구원 원장, Grace Mission University 교차문화학 교수 및 PhD 프로그램 디렉터, Lausanne Global Listening Team Co-Leader, PhD in Intercultural Studies from 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

## 수평적 선교 vs 수직적 선교

글로벌 선교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수평적일 수도 있고 수직적일 수도 있다.

수직적인 차원 ↓ 세계를 다른 세대에 따라 이해

## 수평적 선교 vs 수직적 선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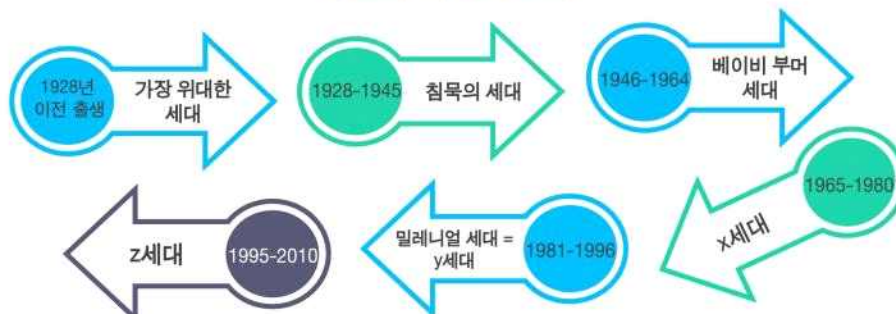
글로벌 선교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수평적일 수도 있고 수직적일 수도 있다.

전통적인 이해는 너무 수평적이었다.

새로운 세대들을 이해하는 것은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진정한 선교 마인드의 필수적 부분이다.

## 그들은 누구인가?

2014년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의  
종교적 지형 보고서



## 그들은 누구인가?

2014년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의  
종교적 지형 보고서

2019년 이후 z세대는 20억 명 이상.  
세계 인구의 30%를 차지함.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밀레니얼 세대(1981-2012) z세대 사람들.

## 그들은 누구인가?

2014년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의  
종교적 지형 보고서

한국에서 전체 소비자의 21.7% 차지

미국에서 전체 소비자의 40% 차지

전통적인 매체보다  
감각적인 미디어 더 선호함

아마도 세계의 마지막 세대가 될 것임.  
(동질적 특성을 가진 한 세대를 범주화 하기 불가능하기에)



## 그들은 어떤 모습인가?



현대의 기술에 일찍 노출되면서  
z세대만의 구별된 세계관과 삶의 양식을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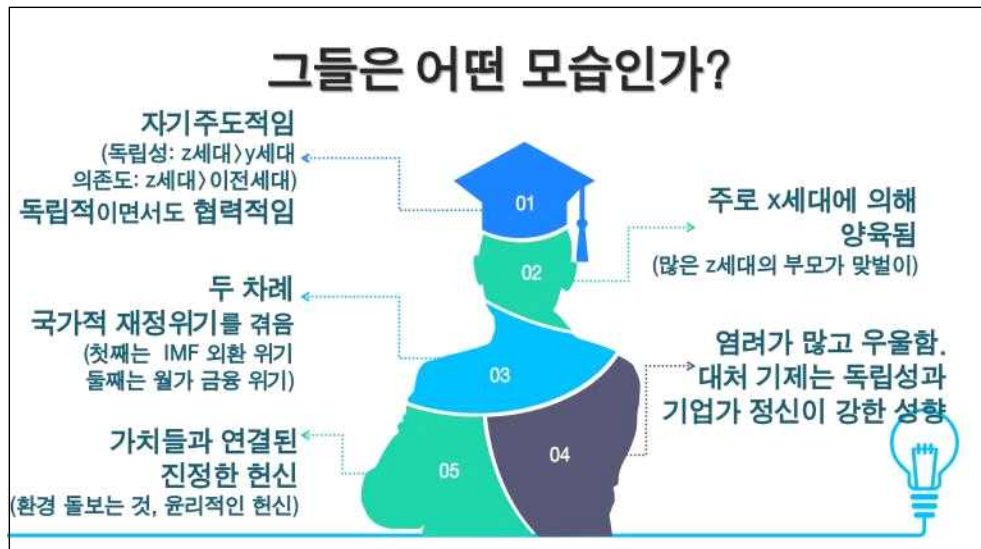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와  
함께 자라  
기술적으로  
뛰어남.



일반적으로  
멀티태스킹에  
활련 능함



구글, 아이폰즈,  
트위터, 우버,  
인스타그램 등과  
같은 시기에  
태어나  
디지털  
네이티브로 자람



###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가?

Z세대는 특별히 많은 서구 국가들에서  
포스트-크리스천 상황에서 자란  
첫번째 포스트-크리스천 세대이다.

전반적인 패턴이 세대가 젊을수록  
더 포스트-크리스천적인 경향이 있다.

###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가?

포스트-크리스천 세대에 다가감에 있어  
세계관 석의가 필수적이다.

Z세대 세계관의 핵심적인 특징은  
과학주의(scientism)이다.



##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가?

과학주의(scientism)는 입증하기 위해  
논증도 하지 않고 사실적인 것으로 가정된다.

초자연적인 차원을 부인하지 않기에,  
과학과 초자연계를 통합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변증적 기회가 된다.



##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가?

다양성에 대한 헌신과 다중적인 해석에 대한  
개방성이 특징



## 그래서 할 일은?

첫째, 우리는 z세대를 더 잘 알기 위해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할 필요가 있다.

참여자 관찰 (participant observation)과  
문화기술적 면접 (ethnographic interview)을 실천함으로써  
문화 기술학자 (ethnographer)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 그래서 할 일은?

둘째, z세대 청년들의 역량과 전문성의 혜택을 위해 그들을 우리의 교제집단과 팀에 초청할 필요가 있다.

때때로 우리는 그들의 지혜와 통찰력으로부터 도움을 받기 위해 역멘토링 (reverse mentoring)의 세션들을 가져야 한다.

## 그래서 할 일은?

셋째, , 우리는 우리의 프로그램들, 메시지들, 환경들을 비판적으로 상황화 (critical contextualization) 해서, 그것들이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Z세대 사람들에게 적실한 것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편안하고, 친근하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그들이 대답을 찾지 못한 '실존적 질문들' (existential questions)을 다루기 위해 우리가 믿는 영원하고 중요한 성경적 메시지를 전해야 할 필요가 있다.

## 바울 사도의 접근법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고린도전서 9:22-23, 개역개정판)

## # 제 2부

# 한국 Z세대의 과학주의적 세계관 지향성과 타당성 구조

### Z세대의 문화적 특징

한편으로 사회적 규범과 압력에 잘 적응하는 경향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전통과 관습에 대해 의문을 던진다.

있는 그대로 존중받기를 원한다. 윗 세대의 기준에 따라  
부당하게 판단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전 세대들과의 외부적인 차이점들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상당한 내적 변이를 가지고 있다. 이 내적변이로 그들은  
차이점들과 개별적 특성들을 존중하는 것을 중시한다.



### Z세대의 문화적 특징

Z세대 청년들은 집단주의적이고 공동체 지향적이라기 보다  
개인주의적이다. 이것은 핵가족 중심의 가정 배경과  
관련이 있다.

그들은 종종 올로족 (YOLO: You only live once)  
이라고 불리는데, 현세지향적인 소비주의와 향락주의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기본적인 신조는 개인 시간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강조와 연관되며, 이는 사회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정당화된다. 또한 이 개인주의는 SNS를 통한  
사회적 소통을 선호함으로 강화된다.





## Z세대의 문화적 특징

많은 Z세대 청년들은 사회적 사건들이 인간관계의 결과로 일어난다고 이해한다. 특별히 정서적 차원이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대인관계는 이 세대에서 결코 간과되지 않으며, 새로운 형태로 강조될 뿐이다. 개인주의 경향이 있지만, 세대 안에서의 다양성에 대한 인정이 다른 사람들에게 민감하게 하는 것이다.

이 조심스런 태도가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사이에서 미묘한 균형을 이루게 한다.

## Z세대의 문화적 특징

융통성은 한국에서 Z세대의 또다른 특징이다. 전통적인 규칙들을 적용함에 있어서 융통성을 강조한다.

많은 Z세대 청년들이 그들이 보고 듣는 바에 따라 의사 결정을 하며, 그렇기에 가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대체로 절대적인 외부적 원리들이 있다고 믿지만, 많은 부분이 개인적인 판단과 선택에 기초한다고 생각한다.

이 가변성이 많은 정신은 개방성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는 갈등이 많은 사회에서의 생존기제로 해석될 수도 있다.



## Z세대의 문화적 특징

많은 Z세대 청년들은 지금까지 살면서 두 번의 국가적인 재정 위기의 영향을 받았다. 첫 번째는 1997년에 시작된 아시아금융위기 (IMF 외환위기), 두 번째는 2007년에 시작된 금융위기로 많은 가정들이 경제적 손실과 불안정성을 겪었다.



2014년 세월호 사건은 이 세대에게 또 다른 트라우마적인 경험이었다. Z세대는 여러 종류의 재난으로 인해 정서적 손상을 입었다.



## Z세대의 문화적 특징

많은 Z세대 청년들은 팀웍과 협업 등에 있어서 인상적인 리더십 잠재력이 있다. 한국의 Z세대의 경우는 마음 속에 깊이 뿌리내린 좌절감을 극복한 경우에 그러하다고 보인다.

어떤 Z세대 청년들은 멘토링과 코칭을 통해 격려 받고 힘을 얻었을 때, 그들의 리더십 잠재력을 실현해서 억압받고 수동적인 마인드를 극복하게 됨을 볼 수 있었다.

Z세대 청년들이 좋은 리더십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역량이 뛰어난 이유 중 한가지를 들자면, 그들 부모의 자녀 양육 스타일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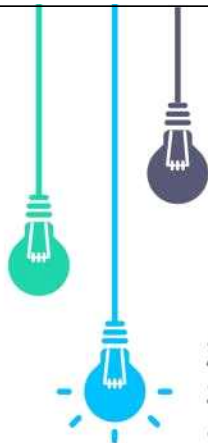
## Z세대의 문화적 특징

한국 Z세대 청년들은 세계의 변화와 발전에 대해 민감하며, 스스로를 그에 적응시키려 한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삶의 안정성을 추구하며, 어떤 종교적 및 이념적 명분에 큰 희생을 치루면서까지 헌신하는데 관심이 없을지 모른다. 대신 그들은 자아실현과 자신의 필요와 기대를 충족시키는 데 관심이 있다.

## Z세대의 문화적 특징



코리 시밀러와 메간 그레이스(Corey Seemiller and Meghan Grace)는 이 세대를 위한 학습 시설은 조용하고, 청결하고 편안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Z세대들은 이전 세대들보다 육체적 및 정서적 편안함을 위해 돈을 더 쓰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거대담론보다 소소한 만족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다.

## Z세대의 과학주의적 세계관



Z세대 청년들은 구글 (1998), 아이튠즈 (2003), 트위터 (2006), 우버 (2009), 인스타그램 (2010) 등 그들이 선호하는 브랜드들과 같은 시기에 태어났으며, 일반적으로 디지털 기술들 사용에 더 빠르고 더 역량이 있다.

어려서부터 온라인과 모바일 기술들에 친숙했기 때문에 디지털 콘텐츠들을 소비하고 재생산하려는 욕구가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 Z세대의 과학주의적 세계관



Z세대 청년들은 과학과 기술이 그들의 삶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자연과학에 대해 인정할 뿐만 아니라 사회과학에 대해서도 가치를 인정했다.

과학적 지식과 이론들은 증명되기 때문에 중요하며, 일상생활에서 과학적 지식을 활용하는 것은 삶의 지혜라고 본다.

## Z세대의 과학주의적 세계관

더 깊은 차원에서 Z세대 청년들은 그들의 세계관에 있어서 과학주의적인 지향성을 보여준다. 그것은 단순히 삶의 지혜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세계와 인생에 관한 선험적인 전망의 (a priori outlook) 문제이기도 하다.

이런 과학주의적 지향성이 Z세대 청년들에게 더 두드러지는 이유는 지금 과학적 지표들이 더 많이 있어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과학적 지식과 기술적 정보를 사용하는 것이 현명하며 합리적이라고 믿는다.



## Z세대의 과학주의적 세계관

이런 종류의 과학주의는 학교에서의 공식 교육에 의해 강화된다.

Z세대 기독교인들은 종교교육보다 세속적인 학교 교육에 의해 더 많이 영향을 받는다. 창조에 대한 근본적인 관점에 있어서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과학과 종교의 간격을 좁히는 것을 힘들어 한다.



## Z세대의 과학주의적 세계관

과학적 사고를 지지하는 또다른 실제적인 이유는 그것이 미래에 대한 예측과 준비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구체적인 과학적 지식을 활용함으로써 준비를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에게 과학주의는 인생의 많은 질문들과 이슈들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약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실용적인 관점이다. 이 관점은 선형적으로 가정된 것이라는 점에서 세계관이라는 가장 깊은 차원에까지 스며들어 있다.

## Z세대의 과학주의적 세계관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인과성에 대해 행동 위주의  
이해를 하는 경향이 있었다

VS

기독교인들은  
인과성에 대해  
유신론적으로 이해



## Z세대의 과학주의적 세계관



Z세대 청년들은 '일들은 그들이 행동하는 것에 달려 있다' 는  
관점을 공유하는데, 이러한 이유로 그들은 결정을 하고  
행동의 코스를 정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압력을 느낀다.

## Z세대의 과학주의적 세계관



비슷한 맥락으로 그들은 환경을 돌보는 것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으며, 미래에 삶의 질을 보존하기 위해  
환경 윤리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 Z세대의 과학주의적 세계관

Z세대 청년들은 판단을 내리기 전에 사실 확인을 하는 것이  
거의 습관이 되다시피 했다. 그들은 사실적으로 진리라고 판단되는  
진리 주장들을 받아들인다. 이는 데이터갯돈(datageddon)의  
현상에 노출됨으로써 더 강화된다.

Z세대 청년들은 어떤 입장이 논리적으로 개진될 때  
수용하는 경향이 있다.

## Z세대의 과학주의적 세계관

논리적 제시는

통계적인  
데이터

과학적  
근거나  
증거

전문적인  
권위

와 연계된다.



그들은 전문가들의 연구 보고서들에 대해서는  
좀처럼 의문을 던지지 않으며,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Z세대 청년들은

● 전문가의 추천과 함께 다른 사람들의 피드백을 점검한다.

## Z세대의 과학주의적 세계관

한국의 Z세대 청년들은 문제 해결에 뛰어나다.  
그들은 첨단기술들과 미디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면서  
두려움 없이 해외에서 활동을 하는데  
이는 이전 세대들과는 다른 모습이다.

이 세대는 관심사를 정하는 데 있어서 선택적이다.  
그들은 관심이 가지 않는 분야는 전적으로 무시하나,  
알기 원하는 분야는 집중된 관심을 보인다.



문제  
해결

## Z세대의 과학주의적 세계관



과학 지식은  
궁극적인 질문들을  
다루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과학주의적 세계관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이나,  
실제적으로는 돈을 중심으로  
적용되는 면이 있기도 하다.

## Z세대의 과학주의적 세계관

과학주의는 형이상학적 차원을 결여해서  
세계관의 필수적 요소가 비어 있다.  
과학주의적인 세계관은 대안적으로 다른 그 공백을  
다른 외부 근원으로부터 보충함으로써 채우려고 한다.

한국 Z세대의 과학주의적인 세계관에 관한  
핵심적인 관찰 중 하나는 그것이 다른 종교적 전통들,  
사상의 조류들, 혹은 철학적 패러다임들과 결합되어 있다는 것이다.

## Z세대의 과학주의적 세계관

Z세대 청년들은 세계관 주제들에 있어서의 일관성에 대해  
별로 상관하지 않고 그 안의 이질성을 있는 그대로 수용한다.  
해체와 불일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으며  
이성주의와 감성주의를 합성한다.

## Z세대의 과학주의적 세계관

다수의 Z세대 청년들은 세계관에 대해 무지하고  
관심이 없어 보이는데, 그것은 그들에게  
실제적이고 당면한 이슈가 아니기 때문이다.

형이상학적이고 초자연적인 차원들은  
자연의 차원들에 단절된 채 남아 있으며,  
그 결과 외부 근원들과 일관성 없게 혼합된  
왜곡된 세계관이라는 결론으로 나타난다.





## Z세대의 과학주의적 세계관

Z세대 세계관의 전반적인 특징은 이질성이고,  
그것은 이질적인 세계관들의 혼합으로 명시적으로 표현되었다.

하나의 획일적인 세계관이 아니라 혼합된 성격으로 인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혼합주의적인 과학주의(syncretistic scientism)라고  
불릴 수 있을 것이다.

## Z세대의 과학주의적 세계관

다른 세대들 간의 차이점들에 대해서 존중하고  
판단을 유예하는 것이 실제로 중요하다.  
상호 이해를 위해서 존재론적으로 차이점을 구분하는 것이  
(to ontologically differentiate) 좋은 출발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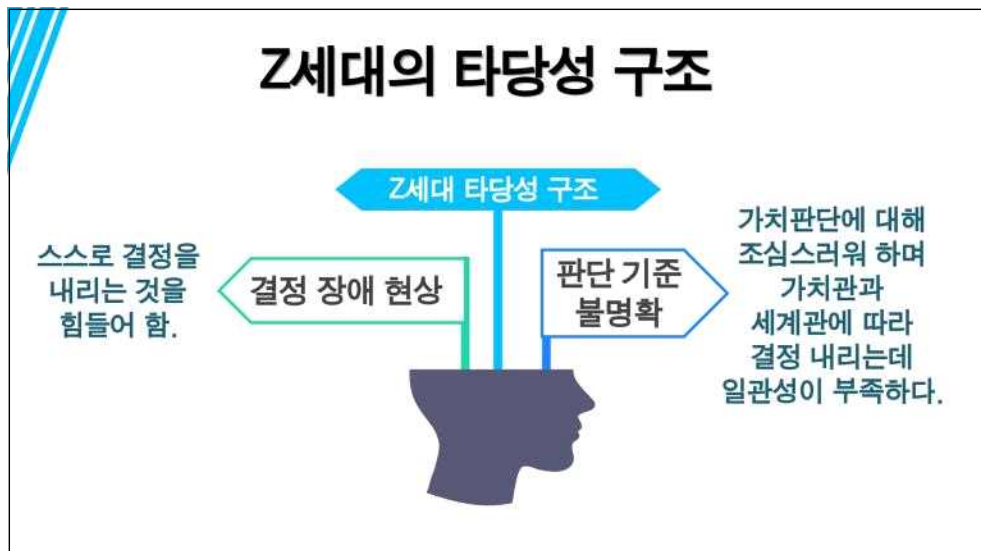
이 과제에 있어 핵심 단어는 믿음이다.  
서로에 대해 존중하면서 믿음을 가지는 것이 (to have faith)  
차이점들을 극복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이다.

## Z세대의 타당성 구조

타당성 구조(plausibility structure)는  
세계관의 기능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사람들은 어떤 진리 주장의  
타당성을 판단할 때 직간접적으로  
세계관의 영향을 받는다.  
근본적인 세계관 주제들은  
인식론적 과정의 방향과  
타당성 구조의 특징들에 영향을 미친다.





## Z세대의 타당성 구조

### 단순한 의사결정

지배적인 가치 체계가 없을 때 그들은 의사 결정에 있어서 일관성을 결여한다.

### 선택적 관심 및 무관심

선택적 관심 및 무관심은 정보 홍수와 그로 인한 혼란으로 기인한다.  
Z세대 청년들은 겉으로는 독립적으로 보이지만 자율성을 결여하고 있다.


## Z세대의 타당성 구조

### 주관성

포스트모던 대중 문화의 감성주의와 결합되어, 그들은 개인적 선호 및 불호에 따라 판단하는 경향이 심하다.  
이 주관성은 종교다원주의(religious pluralism)로 이르게 한다.  
그들은 다양한 종교적 입장들과 무종교인들의 입장 까지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존중하려고 한다.

## Z세대의 타당성 구조


### 일반적 선



Z세대는 **공적인 이익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법과 규칙을 지키는 것을 강조한다. 그들에게 타당한 진리 주장은 사회에 덕을 세우고 **일반적 선**에 기여해야 한다. 동등하게 유효하고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다중의 입장들이 있을 때 **선택한 것이 중심**이 된다.

## Z세대의 타당성 구조

### 윤리적 기준과 익명성




어떤 Z세대 청년들은 이전 세대들보다 **윤리를 더 강조**하며, 인권과 윤리적 이슈들에 더 자세히 관심을 보인다.

**익명의 문화**는 프라이버시와 개인적 권리를 다른 이슈들보다 우선으로 하는 Z세대 청년들에게 방어기제로 나타난다.

## Z세대의 타당성 구조

### 의사 결정

과학주의적 지향성이 의사결정에도 지속되나 항상 이성적이거나 논리적이지는 않다.



### 어떤 매체로 배울 것인가

유튜브나 다른 형태의 VOD 같은 시청각 매체를 선호한다. 그럼에도 인쇄 매체 역시 여전히 효과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 Z세대의 타당성 구조

한국의 Z세대 청년들에게 타당성을 판단하는 요점 한 가지는  
**논리적 일관성 혹은 일치성을 점검하는 것이다.**  
논리적 일치성은 많은 Z세대 청년들에게  
타당성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바로미터다.  
따라서 좋은 논증과 논의를 근거하여  
진리 주장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Z세대 청년들은 다른 사람들, 특히 비슷한 입장에 처한 사람들의  
피드백을 참고하는 것을 중시한다.  
동료들의 피드백은 타당성을 점검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다.

## Z세대의 타당성 구조

### 문화적인 배경, 교육

문화적 배경은 타당성 구조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타당성 구조를 형성하는 데는 **집단적인 차원**이 있는데,  
이는 **교육과 관련**이 있다.  
교육 체계와 문화가 타당성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 Z세대의 타당성 구조

### 학습 스타일 : 경험적 학습


Z세대의 학습 스타일의 특징 중 한가지는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고 주도적으로 되는 것이다.  
일방적인 가르침이 아닌 **경험적 학습**이 중요하다.

종교적 메시지들은 **경험적 내러티브** 즉 간증을 통해  
전달 될 때, 더 현실적인 내용들을 전달할 수가 있다.  
또한 **스토리텔링**은 불일치하는 타당성 구조들을  
**연결**하는 것으로 보인다.

## Z세대의 타당성 구조

경험적 학습과 진정성

경험적 학습은 인지적 학습 방법을 보완한다.  
 기독교인들의 해외 아웃리치 프로그램들을  
 면접 대상자들은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행동을 통해 배우는 것을 선호했다..**  
 Z세대의 교육을 위해선 친근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뢰를 쌓는 것은 간격을 좁히기 위한 노력의 핵심에 속하며,**  
 불일치하는 타당성 구조들이 서로 충돌하는 세상에서 사는  
 Z세대에게는 아주 중요한 것이다.



## Z세대의 타당성 구조

소망(hope)

Z세대 청년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하기 위해서는  
**인식론적인 접착점들을 찾아야 한다.**  
 다른 타당성 구조들 사이의 간격을 메우기 위해서는  
 종교 교육자들은 사고방식에 있어서  
 불일치성의 장벽을 넘어서 **성육신적 동일시**  
 (incarnational identification)를 바라야 한다.



## Z세대의 타당성 구조

신뢰를 쌓는 것

다른 학습 스타일을 존중하는 것

창조적인 접착점을 찾아내는 것





## 기독교 세계관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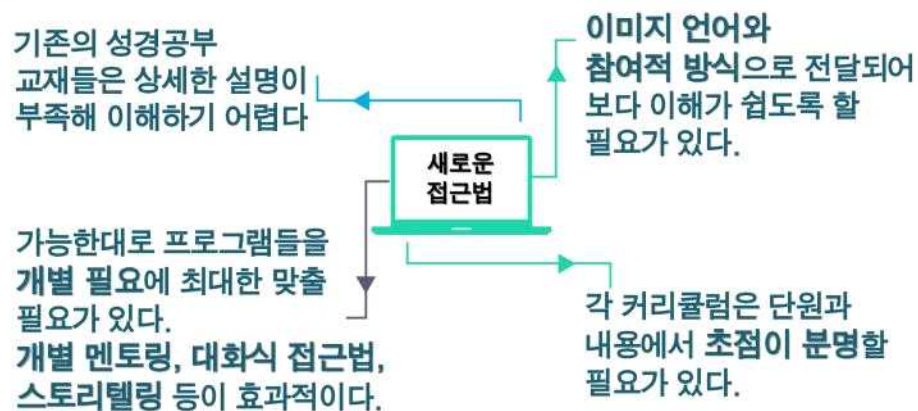
기독교 관점에서 세계관 교육을 하기 위한 노력들은  
인식론적인 접착점에 근거할 필요가 있다.

## 기독교 세계관 교육

혼합주의적인 과학주의의 현상을 다름에 있어서 핵심 이슈 중  
한 가지는 세계관 형성에 있어서  
**형이상학적 차원이 소실되거나 분리된 것이다.**



## 기독교 세계관 교육





## 기독교 세계관 교육

오늘날 성경적인 근거를 가진 메시지를  
첨단 미디어를 통해 전달하는 능력이 대단히 중요하다.  
종교 교육자들은 이 세대의 필요에 맞추어  
이미지 언어를 선호하는 경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기독교 세계관 교육



## 기독교 세계관 교육

한 가지 극복해야 할 장애물은  
율법주의(legalism)이다.  
완벽주의적인 정신은 이 세대에게  
정죄하는 것으로 들린다.



Z세대 청년들은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들을 필요가 있으며, 기독교 교육자들은  
그들에게 나아오는 사람들을  
전심으로 지지함을 보여줘야 한다.

## 기독교 세계관 교육

신앙과 삶을 통합하는 것이 핵심적으로 노력해야 할 부분이다.

신앙이 진정성 있게 표현될 때, 사람들은 더욱 기꺼이 반응한다.  
특히 멘토링 관계를 통해 Z세대 청년들의  
종교적 열정이 강화되었음이 표현되었다.



## 기독교 세계관 교육

Z세대 청년들을 종교적인 공동체에 초청하는 데에는  
많은 지혜와 민감성이 필요하다.

수련회가 효과적이며, 공동체적 활동을 할 때에는  
개별적인 케어가 공동체적 교제와 활동에 수반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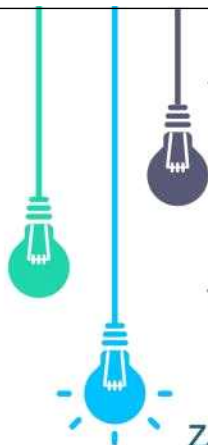


## 기독교 세계관 교육

Z세대 청년들은 종교적 가르침이 어떻게  
가르치는 사람들에 의해 실천되는지 지켜본다.

실천함으로 가르치는 것이 규범적이며,  
일상생활을 통해서 영향을 주는 것이  
아주 효과적이다.

Z세대의 삶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보다 더  
인격적인 터치가 필요하다.



## 기독교 세계관 교육

많은 교회들과 기독교 단체들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봉사하고 활동을 한다.

교회와 기독교 단체들의 희생적인 노력은  
한국 기독교에 대한 일반 대중의 관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Z세대 청년들은 종교적인 공동체에 참여할 때도  
협업에 비슷한 수준의 의지와 역량을 기대한다.  
희생적이고 협조적인 정신이 이 세대에게 중요하다.

## 기독교 세계관 교육

기독교인들과 비기독교인들, X세대와 Z세대 사이의  
간극을 연결할 수 있는 궁극적인 연결점은 무엇인가?

사랑은 세계관 교육에 있어서  
메신저의 정신이면서  
동시에 메시지의 내용이다.

사랑

사랑의 유무가 한 종교 집단이  
실천하는 종교적 세계관의 진정성,  
건강, 성숙도 결정의 바로미터가 됨

분리된 존재들 사이에  
사람으로 교육적인 다리 놓기  
(educational bridging)를 위한  
노력이 필요

사랑에 근거한 접근법들이  
세계관들, 타당성 구조들,  
세대 문화들 사이의 간극을  
연결하는 다리가 됨

## 이론적 통합

데이터 분석을 요양한 핵심 단어들은  
또한 이론적 코딩의 핵심 단어들이기도 하다.

세계관 차원에서 다른 세대들 사이에서  
존재론적으로 차이점들을 구분하기  
(to ontologically differentiate)

소망

세대를 초월하는 규범과 가치들로 인식론적으로  
접촉점들을 찾아내기  
(to epistemologically identify contact points)

사랑의 정신과 메시지로 그 간격들을 교육적으로 다리 놓기  
(to educationally bridge the gaps)

사랑

이 과정은 믿음, 소망, 사랑을 필요로 한다.



## 이론적 통합

**믿음**  
(to have faith)

서로를 존중하면서 믿음을 가지는 것은 세계관 차원에서 존재론적인 차이점들을 극복하는 필수적인 태도이다.

이질적인 세대들 사이에서 신뢰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한 새로운 세대에 종교적 메시지를 가지고 나아가기 전에 필요한 선결 조건이다.

## 이론적 통합

**소망**  
(to hope)

성육신적 동일시를 바라는 것이 타당성 구조에 있어서 불일치성을 극복하는 핵심적인 요소들이다.

다르고 불일치하는 준거 기준들(frames of reference)이 존중되고 접촉점들에 반영될 때 성육신적 동일시는 가능할 것이다.

## 이론적 통합

**사랑**  
(to love)

사랑하는 것은 존재론과 인식론의 간격을 메울 수 있는 기독교 세계관의 궁극적 정신, 본질, 메시지이다.

기독교 세계관은 어떻게 진정으로 사랑을 가르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적인 메시지이다.  
사랑은 기독교 세계관의 본질 그 자체이다.

## 이론적 통합

존재론, 인식론, 교육학의 선교적 과제들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다.



온전한 믿음, 소망, 사랑을 하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과 메시지의 본질이다.

## 분석 요약

| 과정    | 범주     | 주제(반복) | 중심 개념               |
|-------|--------|--------|---------------------|
| 일차코딩  | 일반     | 23(12) | 현상학적으로<br>차이점을 이해하기 |
| 집중코딩  | 세계관    | 18(11) | 존재론적으로 구분하기         |
| 집중코딩  | 타당성 구조 | 29(16) | 인식론적으로<br>접촉점을 찾아내기 |
| 집중코딩  | 세계관 교육 | 26(19) | 교육학적으로 간극을 메우기      |
| 이론적코딩 | 전체     | 96(58) | 믿음, 소망, 사랑하기        |

## 결론

Z세대의 지배적인 세계관은  
일반적으로 포스트모던  
해체주의와 섞인  
혼합주의적 과학주의다.

VS

X세대의 세계관은  
전통적인 세계관과 섞인  
혼합주의적 과학주의다.

## 결론

세계관 차원에서 다른 세대들 사이에  
**존재론적으로 차이점을 구분하는 것**  
(ontologically differentiate)은 중요하다.

대인관계의 태도와 덕목으로서 믿음은  
상호 이해와 존경에 기초해서 **관계형성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오해와 거부의 가능성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독교 교육자들은 믿음과 존중의 정신을 가지고  
Z세대와 같은 낯선 세대에 접근할 수 있다.

**믿음**



## 결론

불일치하는 타당성 구조들은 인식론적  
접촉점들 (epistemological contact points)을  
필요로 하는데, 이것은 세대를 초월한 규범들과  
가치들 속에서 찾을 수 있다.

**바로 성육신적 동일시(incarnational  
identification)를 시도하는 것이다.**

성육신적 동일시는 종교 교육자들이  
젊은 영혼들에게 의미 있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공감을 불러 일으킬 때에만 가능한 것으로,  
이는 바로 **선교적 열정**이다!

**소망**



## 결론

적실한 세계관 교육은  
사랑의 정신으로 **교육적인 다리 놓기**  
(educational bridging) 를 필요로 한다.

기독교 교육자들은 세계관들과 타당성 구조들의  
이질적이고 불일치하는 형성을 고려하면서  
세계관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사랑의 메시지를 사랑의 정신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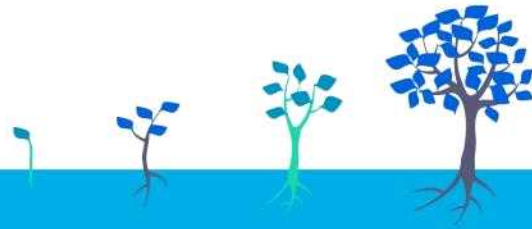
**사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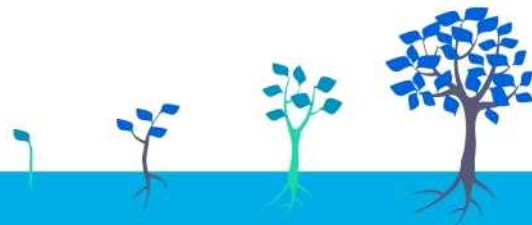
## 결론

믿음, 소망, 사랑은, 위에서 사회과학적으로 석의되었지만,  
기독교 세계관의 초월적인 본질이다.  
이 본질적인 덕목들은 문화, 세대, 세계관, 타당성 구조의  
장벽들을 역량 있게 넘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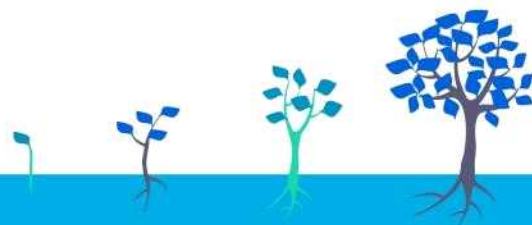
## 결론

세계관들을 변화시키는 미션은  
믿음, 소망, 사랑을 가르치고 실천함으로써 성취될 수 있다.  
새로운 세대를 향한 아웃리치에 있어서  
이 덕목들을 통합함으로써 열매 맺을 수 있을 것이다.



## 결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13 개역개정판)



## # 제 3부

# z세대 사역을 위한 점검

### z세대 사역을 위한 점검



### z세대 사역을 위한 점검



## Z세대의 과학주의적 세계관 특성과 타당성구조에 대한 연구<sup>2)</sup>

문상철 카리스교차문화학연구원 원장

###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전통적인 종교 교육과 소통의 방식들은 새로운 세대의 등장으로 인해 많은 변화를 필요로 한다. 새로운 세대의 세계관의 특징 및 이와 관련된 인식론적인 사고 구조의 변화로 인해 교육 방식과 소통에 있어서 적응이 필요하다.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는 이런 교육적인 소통에 있어서 총체적인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교차문화적 연구 (intercultural studies)의 관점과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 프로젝트는 1995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인 Z세대의 세계관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하고, 나아가 다른 사람들이 어떤 것이 진리라고 주장할 때 그 내용이 과연 타당한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어떤 인식론적 틀, 즉 타당성구조가 작용하는지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타당성구조(plausibility structure)라는 개념은 미국의 종교사회학자 피터 버거(Peter Berger)가 처음으로 사용했고, 영국의 신학자인 레슬리 뉴비긴(Lesslie Newbigin)이 선교신학적인 맥락에서 널리 적용한 개념이다(Berger, 1967; Newbigin, 1986).

신세대의 타당성구조에 대한 분석은 과학주의(scientism) 관점과의 연관성을 염두에 두고 연구될 필요가 있다. 과학주의는 과학적인 인식과 설명만이 세계의 현상들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가장 궁극적이고 권위있는 방법이라고 믿는 반면, 종교적이고 전통적인 전제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관점이다. 이런 과학주의적인 특성에 주목하는 것은 미국의 연구 서적들이 Z세대의 문화적 및 세계관적 특성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이 상당 부분 과학주의적인 경향으로 요약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바나 그룹(Barna Group)이 Impact 260 Institute와 협업을 통해 연구한 보고서 Gen Z: The Culture, Beliefs and Motivations Shaping the Next Generation은 Z 세대의 삶에 대한 관점, 사회적 태도, 성적지향성과 관련한 도덕적 관념, 신앙적 진리와 교회에 대한 관점, 신앙적 이슈와 관련된 부모 및 종교교육자 등과 관련된 영향력 관계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다루었다 (Barna Group, 2018). 이 연구 보고서는 Z세대가 단순히 밀레니얼 세대의 아류가 아니라, 상당히 독자적인 특성을 가진 세대라고 보고 있으며, 다양한 범주를 가지고 이전 세대인 베이비부머, X세대, 밀레니얼세대와 비교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핵심적으로, 전체 세대 중에서 정통적인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 즉 소위 “성경적인 세계관 (biblical world-view)”를 가진 사람의 비율이 베이비부머 세대의 10%, X세대의 7%, 밀레니얼세대의 6%에 비해 Z세대는 4%에 불과함을 지적하면서 그런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분석하였다 (page 25). 여러 자세한 분석 이후에 결론적인 내용이라고 여겨지는 것은 이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한 Impact 360 Institute의 문화적 개입

2) ver 1.0. (February, 2021) : Z세대의 과학주의적 세계관 특성과 타당성구조에 대한 연구 결과 보고서



디렉터인 Jonathan Morrow의 주장인데, 그는 무엇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으면 무언가를 제대로 알 수 없다고 하는 관점이 곧 과학주의(scientism)이고, Z세대는 이 과학주의를 놓고 논쟁을 할 필요도 못 느끼며, 당연시한다고 하였다 (page 100).

마크 빌 (Mark Beal)은 Decoding Gen Z: 101 Lessons Generation Z will Teach Corporate America, Marketers & Media 라는 책에서 Z세대의 가치관, 선호도 특별히 미디어 선호도, 사회적 성향과 관계적 태도, 브랜드와 관련한 태도와 특성, 기술과 앱 및 소셜 미디어와 관련한 성향, 사회적 활동과 관련한 심리적 특징을 폭넓게 다루고 있다 (Beal, 2018). 이 책은 종교적인 영역에 대해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Z세대의 문화적 특징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표출되는가를 설명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101가지 특성들은 한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이 무리가 따를 수 있지만, 위에서 종교적인 영역에서 사용된 개념인 과학주의의 특성이 사회적 영역에서 표현되는 것을 설명한다고 보아도 무방하게 여겨진다. 영역만 다르다 뿐이지, 과학주의적인 특성과 관련된 부분은 일관성있게 포착된다고 할 수 있다.

코리 시밀러와 메간 그레이스 (Corey Seemiller and Meghan Grace)의 공저 Generation Z Learns: A Guide for Engaging Generation Z Students in Meaningful Learning은 Z세대의 학습과 관련한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Seemiller and Grace, 2019). 이 책은 Z세대가 질문을 자유롭게 하고 그 질문들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듣기를 원한다는 것, 동시에 Z세대는 사회적 학습자로서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함께 배우기를 원한다는 것과 함께 결국 경험적 학습자로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시연을 통한 학습, 디지털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pages 61-73). 이러한 학습 성향도 어떤 세계관적 관점과 연관지어 설명한다면, 과학주의적인 학습 성향이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권위적인 존재에 의한 일방적인 교육 방식이 아니라, 학습자 중심으로 효과적으로 이해를 돕는 방식의 학습이 바람직하고, 이것은 결국 과학적인 기술과 방법들을 적극 활용한 학습 방법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자는 여기서도 과학주의와 그와 관련한 인식론적 특성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면서 Z세대를 대상으로 종교적인 교육을 해야 할 필요를 보게 된다.

리처드 둘과 Z세대 공저자 팀의 2019년 저서 How Generation Z Wants to Be Led는 특별히 리더십과 관련한 이슈들을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구체적으로 그들의 인식, 선호하는 리더십 특징, 재능 관리, 변화에 대한 태도, 의사소통, 동기, 갈등과 문제해결, 갈등과 팀, 리더십 잠재력 등의 이슈들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Richard Dool & a Team of Gen Z Co-Authors, 2019). 이 책은 Z세대의 높은 교육열과 교육 수준을 주목하면서 대인관계에서의 강점, 효과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강조하는데, 특별히 디지털 네이티브 (digital natives)로서 평판과 광고에 크게 영향을 받는 측면을 부각시키고 있다 (page 34). 저자들은 특히 Z세대의 뛰어난 리더십 역량을 강조하면서 이들이 이상적인 지도자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그들의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의사소통 능력과 결부된다 (pages 48, 93). 이들의 독립적이면서도 동시에 협력적일 수 있는 양면적인 역량은 리더십의 큰 장점으로 파악되고 있다 (pages 138-142). 이런 의사소통 및 리더십 자질과 관련한 Z세대의 특징도 나름대로 과학적인 사실을 중시하면서 형성된 세계관적 특징과 나아가 독자적이면서도 의존적인 현실주의적인 인식론적 특징을 엿보게 한다.

제임스 에머리 화이트 (James Emery White)는 신학자로서 목회적인 경험과 기독교 교육의

전문성을 가진 권위자라고 할 수 있다. 그의 2017년 저서 *Meet Generation Z: Understanding and Reaching the New Post-Christian World*는 Z세대에 대한 이해를 도우면서 그들을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할 필요성을 제기한 책이다 (White, 2017). 이 책은 기독교 전도와 교육 면에서 제기되는 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실제적인 답변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 책은 특별히 미국에서 세대가 바뀌면서 특정 종교를 신봉하지 않는 무종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인구가 급격히 많아져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종교적인 집단이 되고 있는 현상에 관심을 가지면서 새로운 접근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page 21). 그는 무종교 인구집단이 미국에서 가장 큰 종교집단이 되었다고 관측하면서 특별히 Z세대가 포스트크리스천 (Post-Christian) 세대라고 여기는데, 이는 그들의 부모인 X세대의 종교적인 성향에 많은 영향을 받은 결과로 보고 있다 (pages 22, 49, 61, 62). 화이트는 Z세대를 대상으로 한 전도와 교육은 과정이면서 사건이어야 하고, 그 과정이 설명을 향해서 전개되어야 하고, 그 설명이 필터를 통과하기 위해서 신속하고 개입적인 (engaging) 방식이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Z세대가 영적으로 무지한 면이 있지만, 시각지향적으로 정보를 입수하는 면을 주목하고 있다 (pages 117-118). 이런 도전도 결국 Z세대의 세계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들의 인식론적인 틀을 감안하면서 전도와 변증과 교육을 전개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미국에서의 연구의 경우, 중요한 주장들은 양적조사(quantitative research)의 바탕 위에 제기되었다. 질적연구의 통찰력이 적용된 부분들이 특별히 바나 그룹 (Barna Group)의 연구와 리처드 둘(Richard Dool)과 그 팀의 연구 등에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지만, 그 주장들이 체계적인 데이터 수집과 분석에 의해 내려진 결론들이라고 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화이트의 경우처럼 통찰력 있는 방향 제시가 돋보이는 경우들도 대체로 저자의 경험을 통해 얻은 주관적인 통찰력을 반영해서 양적조사의 내용을 보완적으로 설명하고자 한 시도였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현상의 이면에 있는 기저의 세계관적 특성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연구하지는 못하였다. 이런 선행 연구의 한계를 고려할 때 Z세대의 세계관 및 인식론적 특성에 관해 자세하고 깊이있는 연구, 특별히 풍부한 질적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정교한 질적연구(qualitative research)의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Z세대의 종교 및 종교교육과 관련된 경험적 연구의 보고서들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 기출판 자료들도 마케팅과 미디어 효과 분야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마케팅 분야의 국내 자료들의 연구결과들을 요약해 볼 때도 Z세대의 과학주의적 경향을 세계관적 배경으로 상정해 볼 수 있다 (대학내일20대연구소, 2019; 매경 Economy, 2019년 06월호 2012호; KISDI STAT Report 19-03호 2019. 02.15; 이근주, 박성공, 2018; 삼정 KPMG 경제연구원, 2019).

국내 발행 자료 중 대학내일20대연구소의 밀레니얼-Z세대 트렌드 2020은 밀레니얼 및 Z세대의 문화적 특징들을 설명하면서 상당 부분 마케팅 등 사회적 생활의 영역에서 다루고 있다 (2019). 이 책에서 다루는 내용들 가운데, 제1부의 밀레니얼-Z세대 탐험 부분에서 ‘실감세대: 오감을 만족시키는 현실 같은 감각에 끌린다’ 부분이 과학주의적 특성과 관련이 있다. 또한, 제3부 중인 밀레니얼-Z세대 부분에서 ‘원래, 그냥 말고 이유가 필요하다’, ‘제2의 인생을 만드는 퇴근 후 시간’, ‘아르바이트도 취미와 적성에 맞춘다’, ‘결론: 시간과 업무에 유연함을 도입하다’, 또한 ‘첫 번째 코드 체벌리즘: 체험으로 팩트 체크’, ‘두 번째 코드 듣는 디지털: 정보도 힐링도 영상을

들으면서’, ‘세 번째 코드 배우는 유튜브: 자기계발부터 취미생활까지 쉽고 얇은 지식’, ‘네 번째 코드 뉴비사절: 콘텐츠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팬덤을 이루다’ 등의 장들이 과학주의적인 세계관적 특성과 관련이 있다고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매경 Economy, KISDI STAT Report, 이근주와 박성공, 삼성 KPMG 경제연구원 등의 국내 선행 자료들 역시 특정한 주제에 집중해서 체계적인 연구를 했다가보다 다양한 범주들을 가지고 다소 산만하게 이해를 돕기 위한 분석을 했다고 할 수 있다. 그 내용 가운데 연구자들에 의해 직접적으로 과학주의와 관련지어진 내용들은 거의 없지만, 위의 예에서 살펴본대로 간접적으로 관련된 부분들은 더러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내와 미국의 선행 자료들이 공히 Z세대의 과학주의적인 특성에 대해 추측하고 있지만, 보다 체계적인 이해가 필요하며, 더군다나 두 나라의 Z세대의 특성에 대해 교차문화적인 관점에서의 비교 분석은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기존 자료들의 한계를 고려할 때 이 세계관과 타당성구조라는 연구주제에 초점을 맞춘 경험적연구(empirical research)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별히 체계적인 질적조사를 통해 객관적이면서도 깊이있는 탐구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Z세대를 연구모집단(research population)으로 해서 한국의 Z세대의 세계관과 타당성구조에 대해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러한 우선적인 연구의 초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데이터의 해석의 과정에서는 가능한 만큼 미국의 Z세대와의 비교를 시도하였다. 물론 미국과 한국은 같은 세대라도 문화적인 토양과 환경이 매우 다른 점을 고려할 것이지만, 글로벌화로 인해 문화적인 동질성이 심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차이점과 함께 유사성도 고려하고 비교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기독교 배경의 지도자들 및 교육자들이 Z세대를 대상으로 교육적인 의사소통을 할 때 보다 효과적인 교감과 전달을 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기독교 교육의 커리큘럼 개발과 전달 방법 등 구체적인 면에서 발전을 이루는데 기여하게 될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윤리적인 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이 진행되었다.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연구대상자들의 데이터를 비교하였지만, 연구대상자들의 종교적인 관점의 차이를 존중하면서 진행하였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연구 목적과 절차상의 이슈는 없었다고 판단한다.

## 2. 연구목적

본 연구 프로젝트는 Z세대의 과학주의적인 세계관 특성과 이와 관련된 타당성구조를 분석하여 이들에게 효과적인 기독교 교육 방식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목적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1). Z세대의 세계관은 과학주의(scientism)와 관련하여 어떤 특징들을 보이고 있는가? 2). Z세대는 인식론적으로 어떤 타당성구조(plausibility structure)를 가지고 있는가? 3). Z세대를 대상으로 기독교 교육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는가?

본 연구 프로젝트의 전 과정은 위의 연구목적과 연구질문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 3. 연구도구 및 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 프로젝트는 심층 인터뷰에 의한 질적연구(qualitative research)의 방식을 택하였다. 여러 질적연구의 패러다임 중 특별히 구성주의적 근거이론(grounded theory)의 방식을 중심으로 설계되었다. 이러한 접근에 따른 연구 대상자 선정, 자세한 연구 방법, 자료 수집과 분석은 아래와 같다.

####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만 18세 이상 25세 미만인 사람들과 그들을 대상으로 기독교적인 교육을 하고 있거나 해본 사람들 중에서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그 숫자는 Z세대 20명, 기독교 교육자 10명 합하여 총 3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는 비수치적인 질적데이터(nonnumerical qualitative data)이며, 그 수집 방법은 개별적인 화상면접을 해서 진행되었다.

연구대상자들과의 화상면접 과정에 있어서 있을 수 있는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화상면접은 녹화하지 않았고, 별도의 녹음기를 사용해서 녹음을 해서 녹취하였다. 이 녹취록 작성에 있어서는 연구대상자가 특정되지 않도록 기록되었고, 이 기록은 엄격하게 3년 동안 관리된 후 폐기될 것이다.

Z세대 연구 참여자의 구성은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비율을 각각 10명씩 구성하여 총 20명이 되었다. 이 20명의 종교적 배경을 면밀히 고려할 때 다양한 종교적 및 교육 배경에 따라 응답의 추세가 어떤지 적절하게 파악되었다. Z세대 대상 교육자들의 구성은 지역 교회 소속과 대학 캠퍼스 선교단체 소속으로 나누어 각각 5명씩 면접하여 그 배경에 환경에 따라 관찰된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적절하게 비교되었다. 전체적으로 Z세대의 응답을 통한 직접적인 분석과 그들의 교육자들을 통한 간접적인 분석을 대조해보면서 직간접적인 인식의 차이를 비교하고, 주관적인 인식과 객관적인 인식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전체 30명의 연구대상자 숫자는 질적조사의 표본 크기로는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질적조사의 원리에 따라 통계적인 일반화가 아닌 논리적인 일반화를 하였기 때문에 표본의 구성에 있어서도 적절한 논리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연구대상자의 모집은 연구자가 평소에 협력하고 있는 교회, 학생 선교단체, 교육관련 단체의 청소년 및 대학생 담당자의 협조를 구해서 연구 대상자들이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연구진은 이들 단체들의 담당자들에게 연구자의 연락처와 모집 공고문을 보내어 그들이 모집공고문을 자체 인터넷 네트워크(교회 및 단체 홈페이지, 페이스북, 카카오톡)를 통해 게시하고, 그 공고문을 읽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연구진에게 연락을 하도록 하였다. 연구진은 신청자 중 적합한 사람을 선착순으로 선정해서 면접설명문과 동의서를 보내어 이들에 면접에 응할지 자발적 의사를 확인한 다음 화상면접 절차를 진행하였다. 이들이 면접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자발적으로 명확하게 표명하

고 서명할 경우, 연구자는 면접질문지를 보내어 이들이 면접의 내용을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진은 연구대상자와의 연락 목적으로 그들의 성명, 전화번호, 화상면접을 위한 접속정보(zoom.us로 할 경우 이메일 주소가 필요하였고, 카카오톡의 페이스톡으로 할 경우 카카오히이드 필요)를 수집하였지만, 이 정보들은 연구를 위한 연락 용으로만 활용되었다. 사생활 보호와 비밀 유지를 위해서 면접 중에는 일체의 개인식별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익명으로 진행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서면동의를 받기 위해서 일반 우편, 전자우편, SNS 등 해당자가 선호하는 방법으로 모집공고문, 설명문 및 동의서를 전달하였고, 서명한 동의서는 일반 우편, 이메일, SNS 등 역시 개별 연구대상자가 선호하는 방법으로 종이 혹은 파일 형태로 회수하여 종이를 출력해서 보관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연구대상자는 계획한 기준으로 선정되었으며, 중도탈락이나 동의철회 사례는 없었다.

### 3) 연구방법

데이터 수집의 방법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여 화상 면접을 하는 것이었다. 화상 면접은 연구대상자의 편리한 시간에 인터넷을 통하여(zoom.us, 카카오톡의 페이스톡 등) 접속을 하여 대체적으로 약 60분 이내의 시간 동안 이루어졌다. 연구 대상자가 Zoom을 선호할 경우 연구자는 회의 아이디를 포함한 접속 링크와 함께 사용법을 안내하는 정보를 보냈고, 카카오톡의 페이스톡을 선호할 경우 연구자의 아이디를 제공하여 접속하였으며, 면접 후에는 연구대상자가 유지를 희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이디를 삭제하는 등 접속에 따른 기록을 모두 삭제하였다.

이 화상 면접은 연구대상자의 심리적인 편안함과 사생활 침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녹화되지 않았으며, 별도의 녹음기에 음성 대화의 내용이 녹음되어 추후 연구자가 녹취록을 작성하였다. 녹취의 원칙은 일반적으로 의미를 최대한 보존하면서도 표현을 효과적으로 축약할 수 있는 축약의 원칙(verbatim principle)을 따랐다.

녹취록으로 작성된 면접 기록은 질적 데이터의 분석 소프트웨어인 NVivo(qsrinternational.com)에 입력되어 체계적으로 분석되었다. 분석의 과정에서는 Z세대 당사자의 인식 뿐만 아니라 그들을 대상으로 기독교적 종교교육을 한 사람들의 인식과 대조하면서 분석되었다. 또한 Z세대 안에서도 종교적인 배경과 성향에 따른 차이점들이 비교되었다. 이 분석의 과정에서 미국에서 발표된 분석의 결과도 참고하면서 어떤 공통점과 대조점이 있는지 파악하며 해석하였다.

이 연구의 과정에서 집중한 관찰의 항목들은 다음과 같았다.

- 1). 연구대상자의 종교적인 배경과 정체성
- 2). 세계와 우주의 현상이 작동하는 근본적인 원리, 즉 현실적인 사건들의 객관적인 인과관계에 대한 이해
- 3). 자신의 삶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원리 혹은 인과관계에 대한 주관적 이해
- 4). 과학적인 이론들이 세계와 우주의 현상, 그리고 세상의 현상과 사건들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객관적인 유용성에 대한 이해
- 5). 과학적인 이론들이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의 의미를 찾고, 개인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의 유용성에 대한 주관적 이해

- 6). 어떤 주장이 타당한지 판단하는 근거를 찾는데 있어서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기준
- 7). 종교적인 메시지를 담은 설명이나 주장이 진리인지 판단하는데 있어서 적용하는 기준
- 8). 지금까지 접한 종교적인 메시지 (설교나 강의, 전도 내용)들의 타당성에 대한 이해와 평가
- 9). 종교적인 주장이나 메시지가 더욱 타당성 있게 전달되기 위해 기독교 교육자들이 개선할 방안
- 10). Z세대를 대상으로 종교적인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더 설득력 있게 교육을 하기 위해 교회나 선교회 등 기독교 교육에 관련된 단체들이 더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방안 등.

#### 4) 자료수집

연구대상자의 모집은 2020년 7월 1일부터 11월 14일까지 연구자가 평소에 협력하고 있는 교회, 학생 선교단체, 교육관련 단체의 청소년 및 대학생 담당자의 협조를 구해서 연구 대상자들이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2020년 7월 7일부터 11월 14일까지 총 30명의 연구 대상자들과 화상면접을 하였다.

연구진은 이들 단체들의 담당자들에게 연구자의 연락처와 모집 공고문을 보내어 그들이 모집공고문을 자체 인터넷 네트워크 (교회 및 단체 홈페이지, 페이스북, 카카오톡)을 통해 게시하고, 그 공고문을 읽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연구진에게 연락을 하도록 하였다. 연구진은 신청자 중 적합한 사람을 선착순으로 선정해서 면접설명문과 동의서를 보내어 이들에 면접에 응할지 자발적 의사를 확인한 다음 화상면접 절차를 진행하였다. 이들이 면접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자발적으로 명확하게 표명하고 서명할 경우, 연구자는 면접질문지를 보내어 이들이 면접의 내용을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진은 연구대상자와의 연락 목적으로 그들의 성명, 전화번호, 화상면접을 위한 접속정보 (zoom.us로 할 경우 이메일 주소가 필요하며, 카카오톡의 페이스톡으로 할 경우 카카오히이드 필요)를 수집하였지만, 이 정보들은 연구를 위한 연락 용으로만 활용되었고, 사생활 보호와 비밀 유지를 위해서 면접 중에는 일체의 개인식별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익명으로 진행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서면동의를 받기 위해서 일반 우편, 전자우편, SNS 등 해당자가 선호하는 방법으로 모집공고문, 설명문 및 동의서를 전달하였고, 서명한 동의서는 일반 우편, 이메일, SNS 등 역시 개별 연구대상자가 선호하는 방법으로 종이 혹은 파일 형태로 회수하여 종으로 출력해서 보관하고 있다.*

#### 5) 자료분석

면접을 통해 수집된 질적 자료는 연구진에 의해 녹취록이 작성되었고, 그 녹취록은 기본적으로 근거이론 (grounded theory)의 접근법에 따라 코드화되고 분석되었다. 연구자는 근거이론의 여러 방식 중 특별히 케이씨 차마스 (Kathy Charmaz)의 구성주의적 관점에 따라 자료의 분석과 해석 과정을 진행하였다.

위의 10개 항목들에 대한 연구대상자들의 응답을 유형별로 나누어 일정한 패턴이 있는지 검토하고, 연구대상자의 배경에 따른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응답 내용을 코드화



하여 코딩된 주제어의 빈도와 의미상의 관계를 정밀하게 분석하였다. 또한 부차적으로 연구대상자들의 응답과 관련한 주제어 빈도도 측정하여 시각적으로 표시하였다.

자료분석은 질적조사의 원리와 지침에 따라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엄격한 통계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단어나 주제어의 빈도와 상관관계 등의 분석은 질적조사의 방법에서도 많이 쓰기 때문에 제한적인 수치적인 분석이 될 것이지만, 기본적으로는 논리적인 분석과 일반화를 염두에 두고 분석되었다.

연구자는 입수된 질적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케이씨 차마스 (Kathy Charmaz)의 제안을 고려해서 코드화하였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일차코딩 (initial coding), 집중코딩 (focused coding), 이론적코딩 (theoretical coding)의 삼단계로 진행되었다 (2014, pages 109-224). 일차코딩은 기본적으로 라인별 코딩 (line-by-line coding)으로서 발언 내용을 간단한 동사 혹은 동명사로 요약하는 것이다. 집중코딩은 중요하게 반복되면서 의미상의 비중이 큰 코드를 찾고 그 관련성 속에서 심층적 의미를 찾아내는 과정인데, 이것은 여러 의미 중 중심적인 내용을 찾고 그 의미를 분석하는 과정이 되었다. 이론적코딩은 집중코드를 중심으로 이론화의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자료들이 관련 분야에 축적된 이론 영역에서 귀납적으로 제시하는 의미를 찾는 과정이 되었다.

이러한 분석은 호주의 QSR International의 질적자료 (비수치적 자료) 분석 전문 소프트웨어인 NVivo를 통해 이루어졌다. 연구자는 이 소프트웨어의 사용에 익숙하며, 위의 분석법은 수차례 적용하였고, 다른 연구자들에게 지도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의 사용이 도움이 되었다.

#### 4. 결과

자료 분석의 결과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차코딩, 집중코딩, 이론적코딩 등 3단계에 따라 진행되었다. 이 절차는 기본적으로 기술적 분석(descriptive analysis)에서 생성적 분석(generative analysis)으로 나선형으로 진행되는 과정이었다.

##### 4.1. 일차코딩과 기술적 분석

일차코딩의 과정은 라인별 코딩(line-by-line coding)으로서 총 96개의 코드로 정리되었다. 이 가운데 23개 코드는 어느 특정한 연구 질문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일반적 관찰 사항들이었다. 나머지 73개 코드는 연구질문들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데, 그 중 18개는 과학주의와, 29개는 타당성구조와, 26개는 효과적인 교육적 접근과 관련되는 것들이었다.

총 23개의 코드는 Z세대의 특징에 관한 일반적 관찰의 범주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12개는 세 사람 이상의 연구 대상자들에게 의해 반복적으로 언급되었다. 아래에 강조된 특징들이 요약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Z세대는 사회적 규범과 압력에 한편 잘 적응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전통과 관습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세대의 사람들은 이전 세대와 상당히 다르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런 차이점이 기성세대와 갈등을 야기하는 요인이 된다고 보고 있다. 그들은 구별되는 다른 세대로 인정받고 싶어한다.

한국의 Z세대는 윗 세대와 다를 뿐만 아니라, 이 세대 안에서도 상당히 서로 다른 면모를 가지고 있다. 내부적인 변이가 강해서 세대로서의 동질성이 약하고 응집력이 약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요인은 부모의 양육 스타일과 가정의 배경이 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내부적인 차이로 인해서 이 세대인들은 서로의 차이점을 존중하고 개별적인 특징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미국의 연구에서 Z세대가 세대로서의 동질성을 가진 면에서 마지막 세대라고 추측하는 관점이 있는데, 한국에서도 이런 동질성 결여 경향이 상당히 강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러한 견해가 설득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Z세대인들은 집단주의적이거나 공동체지향적이라기보다 개인주의적이다. 핵가족의 영향으로 개인적 관점이 당연시되는 것이 어려서부터 형성되었고, 개별적인 관점에 대해서 심각한 도전을 받아본적이 없기 때문에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많은 경우 부모의 유일한 혹은 유일한 자녀로 자랐기 때문에 상당히 수용적인 가정 분위기에서 자란 과정이 이런 경향을 강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어린 시절부터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았으며, 이런 경향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는 인식과 함께 개인적 소비와 향락을 중시하는 특성도 관찰되었다. 오늘날 상당히 보편화된, SNS를 통한 소통방식도 이런 개인주의 성향을 더욱 강화시키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많은 Z세대인들은 사회적 사건들을 대인관계의 결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특별히 감성적인 차원이 아주 높게 강조되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인식하는데, 이들은 홀로 중요한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기도 하다. 이들은 동료집단의 관점과 의견에 특별히 민감하다. 개인주의 경향이 있으면서도 다양성을 강조하는 관점과 결합되면서 다른 사람들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하는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 속에서 이들은 융통성을 상당히 강조한다. 더욱 개방적으로 생각하고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서 전통적인 유교사상이 많이 퇴조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독교의 경우, 전통적인 규범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경향이 포착되기도 했다. 융통성 있는 사고방식은 갈등이 많은 사회에서 생존하는 하나의 방어기제로서 강화되는 면이 있기도 하다.

이들은 현재까지의 삶에 있어서 1997년의 외환위기, 2007년의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그 위기의 경험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많은 가정들이 경제적 손실과 불안정성을 겪었고, 이들은 어렸을 때 많은 시간을 TV 앞에서 홀로 보낸 기억들을 가지고 있다. 물론 그 부모들의 정신적 건강이 그 자녀인 이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2014년의 세월호 사건은 이들의 성장기에 가해진 또다른 국가적인 재난으로서 영향을 미쳤다. 상당수 인터뷰 대상자들은 이러한 사건들을 성장기에 겪은 세대로서의 상실감과 슬픔을 표현하기도 했다.

미국에서의 연구에서 Z세대의 리더십 잠재력에 관한 지적이 있었는데, 한국 Z세대 연구에서도 그런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어려움을 겪고 견뎌낸 과정에서 형성된 강인함이 리더십의 발전으로 연결된 개연성을 상당 부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리더십 강화 요인으로서 이들 부모의 양육 스타일이 통제적인 부모로서 소위 헬리콥터 부모(helicopter parents)가 아니었다는 요인이 제시되었지만, 한국 Z세대의 부모들은 여전히 헬리콥터 부모로서의 모습을 가진 경향이 상당히 확인되었다. 하지만 한국 부모들 역시 자녀 교육에 관한 지식이 이전 세대보다 더 많아서 자녀를 정서적으로 더 건강하게 양육할 준비가 된 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 Z세대는 변화에 민감하고 변화와 발전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관찰되었다. 그래서 새로운 정보와 함께 자신의 생각이 바뀌는 경험을 많이 한다. 교육과 취업에 대한 열의가 이전 세대보다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삶의 안정성이 이들에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자아실현과 자신의 꿈을 성취하고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 실제적인 우선순위가 될 때가 많다. 취업을 했을 때는 자신의 역량을 입증해보이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는 한편,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한다.

미국 연구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Z세대인들을 위해서는 교육 환경이 조용하고 깨끗해야 한다는 점은 본 연구에서도 상당히 확인되었다. 시설에 대한 기대 수준이 이전 세대보다 훨씬 높아서 교육 환경에 있어서 개선 작업이 필요한 면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단계에서 제기된 중요한 중심 개념은 Z세대의 문화적 차이점들을 현상학적으로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세대가 하나의 세대로서 어떻게 다른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 4.2. 집중코딩과 구조적 분석

집중코딩의 과정은 연구질문들과 직접 관련된 중요한 주제들을 찾아내고 분석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는 세 명 이상이 반복적으로 언급한 주제들이 우선적으로 다루어졌다.

### 4.2.1. 과학주의와 세계관 경향

첫번째 연구질문은 과학주의(scientism)와 연관된다. 전체적으로 18개의 코드가 이 이슈에 대한 것이었다. 그 가운데 11개의 코드가 세 명 이상에 의해 반복적으로 강조되었다.

Z세대는 구글, 아이튠즈, 트위터, 우버, 인스타그램 등 이들이 선호하는 여러 브랜드와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 함께 자라면서 이것들과 관련된 기술들에 친숙한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s)로서의 경향을 가지고 있다. 인터뷰 대상자 중 여러 명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면에서 더 빠르고, 보다 효과적으로 일을 해낼 수 있다는데 동의했다. 단적으로 TV를 즐겨보는 부모들과 달리 VoD를 선호하는 것이 이런 다른 면모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대체적으로 이들은 인쇄 매체에 의존하는 경향이 이전 세대보다 덜하다고 확인해주었다. 타인과의 소통에 있어서도 SNS가 선호되었다.

이들은 과학과 기술이 삶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 자연과학 뿐만 아니라 사회과학에 대해서도 가치를 인정하는 편이고, 과학적인 판단과 결정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더 강하다.

더 깊은 차원에서 Z세대인들은 세계관에 있어서 과학주의적인 경향을 띤다. 그것은 삶의 지혜일 뿐만 아니라, 세계와 인생에 관한 선형적인(a priori) 전망이 되기도 한다. 이들 중 상당수는 과학적인 이론과 종교적인 진리주장이 충돌할 때 과학을 우선시하는 관점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런 과학주의적인 경향은 이 세대가 이전 세대보다 더 강하고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기독교인들의 경우 유신진화론을 수용하면서 과학주의적인 세계관을 정립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다.



이런 과학주의는 학교에서의 공교육 과정을 통해 강화되고 있다. 기독교인들의 경우 교회에서의 가르침보다 학교에서의 가르침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경향이 있기도 했다. 대체적으로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에 비해서 세계관 차원에서의 인과관계(causality)의 이해에 있어서 과학을 신봉하는 경향이 더 강하였다. 다수의 Z세대인들은 과학적인 지식에 기반한 관점이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고 본다. 인터뷰에 응한 20명 중 18명 정도가 이런 과학주의적인 관점을 주장하는 표현을 하였다.

Z세대인들, 특별히 비종교인들은 인과성을 행동주의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었다. 많은 것들이 행동과 노력의 결과라고 보기 때문에 의사 결정에 있어서 지나치게 신중한 면도 있다. 이렇게 조심스런 면이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어떤 판단을 하는데 있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거의 습관화된 면도 있다. 논리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연장선상에서 어떤 분야의 권위자의 말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가운데 이들은 문제 해결에 뛰어난 면모를 보이기도 하는데, 특별히 낮은 곳이나 다른 문화권에서의 활동에 있어서 두려움없이 자신감을 보이기도 한다.

이들이 뛰어난 역량을 보이는 것은 관심 분야를 정하고 거기에 선택한 분야에 관심을 집중하는 경향과도 연관된다. 이런 경향은 AI의 알고리즘의 작용과도 연관이 있다. 선택적인 관심을 보이는 경향이 지식의 분파화를 일으키는 경향과도 연결이 된다.

과학적인 지식과 이론의 한계에 대해서도 상당수 인터뷰 대상자들은 잘 인식하고 있었다. 특별히 궁극적인 삶의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음을 이들은 잘 이해하고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 삶의 많은 문제들은 사회적이고 관계적이어서 과학적으로 풀어낼 수 있다는 인식이 보편적으로 많이 공유되고 있었다. 이렇게 과학주의로 기울면서 이들의 세계관 경향은 균형을 잃는 면이 있다. 그 결과 물질주의 경향이 강해져서 금전적인 문제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그 결과 취업이 중요한 이슈가 된다. 때로는 고용된 회사에 대한 충성심이 약해 보일 수도 있는데, 그것은 극단적인 경우 유아주의(solipsism)으로 흐르고, 그것은 지나친 자기 표현, 직무에 대한 불만족, 감정적 갈등과 폭발 등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과학주의는 형이상학적 차원을 결여하여 세계관으로서 본질적인 요소를 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한계로 인해 과학주의 세계관은 다른 근원으로부터 그 결여된 요소를 보충시키려고 한다. 그 결과 다른 종교적 전통이나 사상의 조류, 철학적 패러다임과 혼합되는 경향이 있다. 과학주의가 근대 이전의 종교적 전통과 결합될 때 세계관의 핵심 요소인 인과관계 이해에 있어서 유신론적으로 흐르며, 현재의 사조와 결합이 될 때 포스트모던적인 요소와 연결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럴 경우 세계관 차원의 일관성이 결여될 수 있는데, Z세대 사람들은 그에 대해 별로 상관치 않는 모습을 보였다. 해체와 불일치의 문제에 대해 별로 개의치 않으면서 실제로 혼합된 세계관적 특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논리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주제를 결국은 감성적으로 결론을 맺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대체로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질문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규명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결과는 왜곡되고 일관성이 없는 채로 혼합된 형태로 존재하는 세계관적 특징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Z세대를 대상으로 종교적인 교육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Z세대의 특성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 왜냐하면 이 교육자들은 근대 이전이 전통적인 세계관과 현대의 계몽주의 세계관

이 결합된 세계관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적인 세계관과 포스트모던 세계관이 결합된 Z세대의 세계관이 상당히 낯설기 때문이다.

이렇게 다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다른 세대 사이의 차이점을 존중하면서 판단을 유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존재론적으로 차이점들을 이해하고 구분하는 것이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이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중심 개념이고, 그 핵심 단어는 믿음이다. 서로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차이점을 극복하는데 본질적으로 중요하다.

#### 4.2.2. 타당성구조

타당성구조(plausibility structure)는 세계관의 기능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사람들이 특정한 진리주장(truth claim)의 타당성(plausibility)을 판단할 때 그들은 직간접적으로 그들의 세계관의 영향을 받는다. 근본적인 세계관의 주제들이 인식론적인 과정의 방향에 영향을 주고, 그 타당성구조의 특징들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타당성구조의 이슈는 두번째 연구질문과 그 탐구 영역(probe)들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와 함께 분석되었다. 전체적으로 29개의 코드가 이 범주에 속했고, 그 가운데 16개는 세 사람 이상의 인터뷰 대상자들이 반복적으로 언급한 것들이었다.

타당성 판단과 관련하여 Z세대인들은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의존하는 경향도 보이기도 했다. 이들의 의사결정은 기성세대가 볼 때 단순하게 내려지는 경향도 있어서 일관성이 없을 때도 많이 있다. 접하는 정보 유입과 충동에 따라 즉각적인 결정을 하는 경향을 띠기도 해서 기성 세대 입장에서는 서투르게 보일 수도 있다. 그 결과 종교적으로는 이단적인 가르침에 쉽게 현혹될 수 있는 취약한 면도 있다.

이러한 경향은 선택적 관심과 무관심의 경향과 관련이 있다. 어떤 사안에 대해 시간을 쏟을지 말지를 빠르게 결정하는 경향이 있어서 관심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바로 떠나기도 한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정보의 홍수 현상 때문이기도 하다. 이런 가운데 주관적인 판단을 하는 경우도 많이 보인다. 특별히 포스트모던 감성주의와 결합되어 개인적인 선호에 따라 결정되는 면도 있다. 이런 주관주의는 종교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모두를 다 인정하고 공존을 강조하는 종교다원주의로 흐르게 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점은 포스트모더니즘의 해체주의(deconstructionism)와 결합된 혼합주의적인 과학주의(syncretistic scientism)의 인식론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Z세대 사람들은 법률과 규칙을 지키는 것을 강조하면서 공적 이익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타당성 있는 진리 주장이라면 사회의 일반적인 유익을 위해 공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두 나름대로 타당하고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다수의 대안이 있을 때 좋은 것, 유익을 끼치는 것이 중심적인 기준이 되기도 한다. 타당성 판단에 있어서 윤리적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과학주의적인 경향이 일상적으로 적용될 때 본인이 무엇을 원하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할 때도 많다.

학습을 할 때 선호하는 미디어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유튜브와 다른 VoD 형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시청각적인 매체가 학습에 있어서도 선호되고 있다. 자기 표현을 하고 자신의 관점을

전달하는 채널로 인스타그램이 널리 활용되고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쇄 매체는 전문 지식을 배우는데 있어서는 여전히 효과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한국 Z세대 사람들은 타당성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논리적인 일관성과 통일성을 점검하는 것을 중시한다. 논리적 일치성이 타당성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종교적인 메시지가 논리적으로 잘 제시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다. 좋은 논리와 논의를 거쳐 종교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대중의 기대에 영합하기 위해 종교적인 메시지를 왜곡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표현한 사람들도 다수 있었다.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는 메시지나 진리주장은 자연스럽게 쉽게 받아들여진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타당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피드백이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특별히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이 중요하다. 동료 피드백이 타당성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문화적 배경이 타당성구조에 영향을 미치는데, 특별히 교육 체계가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학습 스타일에 있어서는 스스로 동기가 부여되는 것이 중요한데, 교육자들은 학습자의 동기 부여를 위해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일방적인 교수법으로는 효과적으로 교육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종교 교육에 있어서는 스스로의 깨달음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지적되었다.

동시에 경험적인 차원이 학습에 중시되어야 한다. 교육자가 자신의 체험에 근거해서 가르칠 때 더욱 효과적으로 될 수 있다. 설교에 있어서는 설교자의 개인적인 체험담이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경험적 내러티브로 전달될 때 내적으로 감동을 줄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내용을 잘 담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야기를 나눌 때 교육자와 학습자 사이의 간격이 메워질 수 있는 것이다. 일치하지 않는 타당성구조를 이어줄 수 있는 역할을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이 해낼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동시에 학습자 스스로 해보게 하는 체험학습의 방식도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 학습자들의 참여를 통해 더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 효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교회의 경우 해외에서의 단기 봉사 경험들이 이런 효과를 극대화한 사례로 추천되기도 했다.

타당성구조에 있어서 세대마다 다른 특징들을 보일 수 있는 것은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이다. 차분한 묘사에 기초해서 차이점들을 이해하는 것이 어떤 판단에 앞서야 한다. 인식론에 관한 질문은 결코 이진법적(binary)일 수 없기에 차이점들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된 핵심적인 개념은 Z세대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하려면 인식론적인 접촉점들(epistemological contact points)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타당성구조에 있어서의 차이점들을 인식하고 접촉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이 세대를 향해 나아가는 소망의 자세이다. 다른 타당성구조 사이의 간극(gap)을 메우기 위해서는 종교 교육자들이 불일치의 장애물을 넘어 성육신적 동일시(incarnational identification)를 바라는 열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신뢰를 쌓고, 다른 학습 스타일을 존중하고, 창의적으로 접촉점을 찾아내는 것이 성육신적으로 경계를 넘는데 있어서 핵심 요소들이다.

#### 4.2.3. 기독교 세계관 교육

기독교 관점에서 세계관 교육을 위한 노력은 본질적으로 인식론적 접촉점에 근거할 필요가 있다. 전체적으로 26개의 코드가 연구질문3의 범주에 속한다. 이 가운데 19개는 세 명 이상의 인터뷰

대상자들에 의해 반복적으로 언급된 것들이다.

혼합주의적인 과학주의 현상을 다룸에 있어서 핵심적인 이슈 한가지는 세계관 형성에 있어서 형이상학적(metaphysical) 차원의 소실 혹은 분리이다. Z세대 사람들은 과학주의의 이슈에 대해서는 잘 포착하는 반면, 이 형이상학적 차원의 공백이라는 이슈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기독교 교육자들도 이 점에 대해서 동의하는데, 한 교육자는 이 형이상학적 이슈들을 다룸에 있어서도 경험적 학습(experiential learning)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창조에 대한 교육의 경우 자연계의 현상에 대해 직접 경험해보면서 묵상하도록 도울 수 있다는 것이다.

과학과 신앙이 충돌하는 경험을 하는 경우, 실재에 대한 관점을 다듬고 정립하는데 도움이 되는 경험이 되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그런 계기로 형이상학적 질문들을 생각해보고 답변을 찾아가도록 돕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동시에 세계관 교육에 있어서 새로운 접근법과 방법들을 모색하면서 창의성을 발휘하는 것이 요청된다. 교재들도 너무 어렵고 지루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사실적인 정보와 설명이 잘 다듬어져 제시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종교 교육의 새로운 방법을 모색함에 있어서 이미지 언어를 활용하고 참여적인 방식을 채택해서 더 이해하기 쉽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성경 공부의 커리큘럼 등도 최대한 맞춤형으로 제시하려고 노력하고, 특정 주제에 대해서 묵상을 촉진하는 내용이 되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 대화식 방식이나 스토리텔링 방식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 결과 정보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공감이 일어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성경적으로 기반을 둔 메시지를 첨단 매체로 전달하는 능력이 많이 필요하다. 사용자 입장에서 편리하도록 배려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지만, 동시에 신뢰받는 소스(source)로서 교육자가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 이런 노력에 반대되는 현상은 기독교인들이 배타적인 사람들로 인식되는 것이다. 분리되고 고립된 사람들로 인식되지 않도록 공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 신앙 공동체에 처음 오는 사람들이 친근감을 느끼도록 배려를 하고 친절을 베풀 필요가 있다. 인터뷰 도중 거리 전도가 비신자들에게 거부감을 준 언급들이 있었다. 전도자들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자세가 오히려 역효과를 낸 경우들도 들을 수 있었다. 특별히 이 세대를 대상으로 할 때 전도 방식은 더 섬세하고 배려하는 형태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래 집단(peer group)에 의한 전도 방식이 효과적인 것 같다는 의견도 반복적으로 피력되었다.

이들을 대상으로 사역적인 노력을 할 때 한가지 장애물은 율법주의(legalism)이다. 완벽주의적인 정신으로 전달된 메시지는 이 세대의 사람들에게는 정죄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Z세대는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많이 들을 필요가 있다. 사기를 북돋고 전적인 지지를 한다는 표현이 필요하다. 인터뷰에 응한 기독교 교육자 10명 중 9명은 인내심을 가지고 또 분명하게 이런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노력의 핵심에는 또한 신앙과 삶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신앙이 진정성있게 표현될 때 사람들은 보다 기꺼이 반응하게 된다는 것이다. 인터뷰에 응한 사람들 중 11명이 이 기본적인 기독교의 진리를 강조했다. 대학생들 가운데서는 존경하는 기독교 교육자들의 사례에 대해 진정한 감사를 표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존경받는 사람들에게 의한 멘토링을 Z세대인들은 많이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였다. 개인적인 터치(touch)가 있어야 사람들이 변화를 받는다는 것이 상당히 확인되었다.



교회와 기독교 기관들이 사회적인 봉사를 하는 모습이 기독교의 공적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견해가 반복적으로 표현되었다. 어려서부터 협업과 협력을 위한 교육을 받아온 Z세대인들에게는 교회가 사회적인 공익을 위해 희생적인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궁극적으로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Z세대와 X세대 등,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을 잇는 것은 사랑이다.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한 종교적 공동체의 진정성, 건강, 성숙도를 판단하는 궁극적인 바로미터(barometer)가 된다. 사랑에 근거한 접근법들이 한 세계관과 다른 세계관 사이, 한 타당성구조와 다른 타당성구조 사이, 한 세대문화와 다른 세대문화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는 것이다. 분리된 존재들 사이에 교육학적인 다리놓기의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분석 과정에서 떠오른 중심 개념이다. 교육학적인 다리놓기(educational bridging)는 다중의 접근법이 필요하며, 통합된 접근법이 필요하다. 신 세대에 맞추어 첨단 교육적인 방법들과 기술들을 쓰는 것이 오 리를 가자는데 십 리를 같이 가는 자세의 표현일 것이다. 사랑이 핵심 단어이다. 사랑은 세계관 교육에 있어서 메신저의 정신일 뿐만 아니라 메시지의 내용이기도 하다.

#### 4.3. 이론적코딩과 이론화

위에서 자료 분석의 과정을 요약한 키워드들이 곧 이론적코딩의 키워드들이기도 하다. 그것들은 이론적 요점들로서, 세계관 차원에서 다른 세대들을 ‘존재론적으로 구분하기(to ontologically differentiate)’, 세대를 넘어선 규범과 가치들로 ‘인식론적으로 접촉점들을 찾아내기(to epistemologically identify contact points)’, 사랑의 정신과 메시지로 ‘교육학적으로 간극을 메우기(to educationally bridge the gap)’ 등이다. 이러한 과제들은 믿음, 소망, 사랑을 필요로 한다. 믿음은 차이점을 구분하고 존중하는 존재론적 과제에 있어서 핵심 개념이다. 소망은 인식론적 접촉점을 만드는 과정에서 핵심 개념이다. 사랑은 그리스도의 메시지로 Z세대에게 다가가는 교육적 과제에 있어서 핵심 개념이다.

서로에 대해 존중하며 믿음을 가지는 것은 세계관 차원에서 존재론적 차이점들을 극복하는 본질적 태도이다. 한 세대라고 하기에는 내부적으로 너무나 이질적인 세대의 사람들과 신뢰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새로운 세대에게 종교적 메시지를 전하는데 있어서 선결조건이다. 이 과정은 존재론적 평가를 내리기 전에 차분한 기술과 그에 근거한 정확한 이해를 요한다.

신뢰를 구축하고, 다른 학습 방식을 존중하면서 접촉점을 찾는 것으로 성육신적 동일시를 하려고 하는 소망은 타당성구조에 있어서 불일치성(dissonance)을 극복하는데 핵심적인 요소이다. 성육신적 동일시(incarnational identification)는 다르고 불일치하는 사고체계를 존중하고 접촉점을 마련하려고 할 때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여러 세대가 공유하기에 세대를 넘는 규범과 가치를 포함하기에 인상적이고 효과적일 것이다.

사랑은 존재론과 인식론의 간극을 메울 수 있는 기독교 세계관의 궁극적 정신이고 본질이고 메시지이다. 교육 프로그램에서 학습자가 열정적으로 반응할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사랑의 정신이 많이 필요하다. 교육적인 활동에 있어서 사랑의 메시지는 이질성과 불일치성을 극복하고 영혼들을

힘있게 터치(touch)할 수 있다. 기독교 세계관은 진정성있게 사랑을 가르치는 가를 보여주는 것이 그 핵심 메시지이다. 사랑은 기독교 세계관의 본질 그 자체이다.

존재론, 인식론, 교육의 선교적 과제들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상호연결된 것이다. 온전한 믿음, 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과 메시지의 본질이며, 중심 개념이라는 것이 이 연구의 자료 분석을 통해 대두되었다. 자료 분석의 전체적 결과는 아래 표1에 요약되어 있다.

표1. 데이터 분석 요약

| 과정    | 범주     | 주제(반복)  | 중심 개념            |
|-------|--------|---------|------------------|
| 일차코딩  | 일반     | 23 (12) | 현상학적으로 차이점을 이해하기 |
| 집중코딩  | 세계관    | 18 (11) | 존재론적으로 구분하기      |
| 집중코딩  | 타당성구조  | 29 (16) | 인식론적으로 접촉점을 찾아내기 |
| 집중코딩  | 세계관 교육 | 26 (19) | 교육학적으로 간극을 메우기   |
| 이론적코딩 | 전체     | 96 (58) | 믿음, 소망, 사랑하기     |

## 5. 논의

한국 Z세대의 지배적인 세계관은 일반적으로 포스트모던 해체주의(postmodern deconstructionism)와 결합된 혼합주의적 과학주의(syncretistic scientism)이다. 이것은 대체적으로 X세대의 현대 이전(premodern) 혹은 전통적인(traditional) 세계관과 결합된 혼합주의적 과학주의(syncretistic scientism)와 대비되는 것이다. 세계관의 본성은 그 추종자들에게 그 관점을 정당화하도록 영향을 주는 경향이 있다. 이슈는 각 세계관에 타협할 수 없는 본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반드시 옳고그름의 문제만이 아니다.

세계관 차원에서 다른 세대들 사이에 존재론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중요하다. 내부적인 이질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혼합주의적인. 세계관들의 여러 버전들(versions) 사이에서 존재론적으로 구분하면서도 판단을 유보하는데 있어서 믿음이 핵심 단어가 된다. 결론에 이르기 전까지 판단을 유보하는 태도는 도움이 된다. 믿음은 상호이해와 존중에 근거해서 관계 형성을 촉진하는 대인관계의 태도이자 덕목이다. 오해와 거부의 가능성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독교 교육자들은 믿음과 존중의 정신으로 Z세대와 같은 낯선 세대에게 다가갈 수 있다. 일치하지 않는 타당성구조는 인식론적 접촉점(epistemological contact point)을 필요로 하는데, 이것은 세대를 초월하는 규범들과 가치들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 과제의 본질은 단순히 인식론적으로 중요한 타당성구조의 다면적인 본성을 고려하는 것만이 아니다. 인식론적인 과제를 넘어서 필요한 것은 타당성구조들의 충돌 가운데서 인식론적 접촉점들을 찾아내어 성육신적 동일시를 하는 시도를 하는 것이다. 소망은 이 과정에서 핵심 단어이다. 성육신적 동일시(incarnational identification)는 종교 교육자들이 의미있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젊은 영혼들에게 신선한 깨달음을 주려고 바라고 간절히 원할 때

가능한 것이다. 이것은 다름 아닌 선교적 열정이다. 적합하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다른 타당성구조를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바람직한 세계관 교육은 사랑의 정신과 메시지를 가지고 교육학적인 다리놓기(educational bridging)를 할 필요가 있다. 사랑은 이 교육학적 다리놓기의 과제에 있어서 핵심 단어이다. 기독교 교육자들은 이질적이고 일치되지 않는 세계관과 타당성구조를 고려하여 세계관들을 변형하고자 할 때 사랑의 정신으로 사랑의 메시지를 가르칠 필요가 있다.

믿음, 소망, 사랑은 사회과학적 절차에 따라 위에서 석의(exegesis) 되었는데, 기독교 세계관의 초월적인 본질이다. 이 본질적인 덕목들은 문화, 세대, 세계관, 타당성구조의 장벽들을 능히 넘을 수 있다. 세계관을 변화시키는 과업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르치고 실천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다. 새로운 세대를 향한 활동을 함에 있어서 이 덕목들을 통합하는 것이 열매를 맺는 길이다. 교육자의 세계관이 온전할 때 그것이 다르고 낮은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널리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개역개정판).

## 6. 참고 문헌

- 대학내일20대연구소. (2019). **밀레니얼-Z세대 트렌드 2020**. 위즈덤하우스.
- 매경 Economy. (2019). Z세대가 온다: 밀레니얼 세대와 닮은 듯 다른 신인류-스마트폰 쥐고 자란 ‘포노 사피엔스’. **매경 Economy**, 2019년 06월호 2012호, 28-38.
- 삼정 KPMG 경제연구원. (2019). 신소비 세대와 의식주 라이프 트렌드 변화. **Samjong Insight**, Vol. 66.
- 이근주, 박성공. (2018). 소셜 빅데이터로 본 Z세대. **Card Business Brief 제휴 보고서**. BC카드 디지털연구소.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9).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의 미디어 이용. **KISDI STAT Report**, 19(03) (2019. 02. 15.),
- National Retail Federation, IBM 기업가치 연구소. (2017). **유일무이한 Z세대: 쇼핑 주도권을 키워가는 오늘날의 최연소 소비자 집단에 대해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원출판: 2017).
- Barna Group and Impact 360 Institute. (2018). *Gen Z: The culture, beliefs and motivations shaping the next generation*.
- Beal, M. (2018). *Decoding Gen Z: 101 lessons generation Z will teach corporate America*. Marketers & Media.
- Berger, Peter L. (1967). *The sacred canopy: Elements of a sociological theory of religion*. New York: Anchor Books.
- (1979). *The heretical imperative: Contemporary possibilities of religious affirmation*. Garden City, NY: Anchor Press.

- Charmaz, Kathy. 2014. *Constructing grounded theory* (2nd Edition). LA: SAGE.
- Dool, R. & a Team of Gen Z Co-Authors. (2019). *How generation Z wants to be led*. Published by Richard Dool.
- Geertz, Clifford . (1973).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s*. Basic Books.
- Hiebert, Paul G. (2008). *Transforming worldviews: An anthropological understanding of how people change*. Grand Rapids: Baker Academic.
- Kearney, Michael. (1984). *World view*. Novato, CA: Chandler and Sharp Publishers.
- Newbiggin, Lesslie. (1986). *Foolishness to the Greeks: The Gospel and western culture*. Grand Rapids, MI: Eerdmans.
- (1989). *The gospel in a pluralist society*. Grand Rapids: Eerdmans.
- Pew Research Center. (2014). Religious landscape study.  
<https://www.pewforum.org/religious-landscape-study/>.
- Seemiller, C. and Grace. M. (2019). *Generation Z learns: A guide for engaging generation Z students in meaningful learning*.
- White, J. E. (2017). *Meet generation Z: Understanding and reaching the new post-Christian world*. Grand Rapids: Baker Books.